

내러티브 저널

2026년 4월 20일

오늘은 음악과 교생 선생님과 영화과 교생 선생님의 수업 시연을 참관하였다.

먼저 음악과 수업에서는 선생님의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학생들과의 거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친밀하게 소통하며 수업을 이끌어가셨고, 그 덕분에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참여하는 모습이였다. 전반적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후 영화과 수업 시연에서는 또 다른 방식의 수업 운영을 볼 수 있었다. 교생 선생님은 학생들의 이름을 바로바로 불러주며 참여를 유도했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며 이끌어주셨다. 수업 내용 역시 흥미롭게 구성되어 있었고, 설명도 친절하고 구체적이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흐름이었다.

두 수업을 비교해보면서 같은 '수업'이라도 교사의 성향과 방식에 따라 분위기와 학생들의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 질문 방식, 설명의 친절함이 수업의 참여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다.